우리 같이 함께

팀 데컬코마니(김유진, 송재현, 양지인)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다. 여행이라는 건,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기는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나라들을 다니는 걸 좋아한다. 특히 유럽여행이라면, 내가 원하는 나라들을 보고 그 나라에서만 있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다. 그 외에도 해외 나라를 여행할 때,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해외 나라를 여행할 때는, 한국과는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좋아한다.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유럽여행을 갔을 때, 한 나라에만 흥미로운 게 아니었다. 여러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시도하지 못하는 경험이다.

1. 독일에서

그래서 나는 유럽으로 떠났다. 처음에는 내가. 그 후로도 유럽 여행에 대한 로망을 놓지 않았다. 나는 유럽에 대한 로망을 하나씩 적어갔다. 그리고 그 로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적어갔다. 유럽여행을 계획 중이었던 사람들은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유럽으로 가겠다는 용기와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유럽여행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 같다. 그 와중에도 내가 가볼 수 있었던 유럽은 어디일까?

첫 번째는 독일이었다. 내가 처음 방문한 도시는 독일의 대도시 하이델베르크였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평온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가장 번화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는 이 곳뿐이었다. 독일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는 역시 베를린이었다. 베를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베를린에서 갑자기 그가 내게 다가왔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내가 묵었던 호텔로 친절하게 안내해주었다. 나는 그를 내가 묵은 호텔에서 마주했다. 그는 내가 묵었던 호텔의 직원으로,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하며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묵을 호텔의 조식이나 호텔 경치나 간단한 문제들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로비에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작별인사를 건넸다. 로비로 가서 다시 내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행동에 압도되었다.

그는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와 내 양 볼에 뽀뽀 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 접해보는 문화였다. 문화 차이가 너무 심했다.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나, 신기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됐다. 몸도 힘들고 말도 안 통하니 답답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여행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여행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 그 이후에 알게 된 것들이 오히려 더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그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정말 좋다.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게 되면서, 나는 여행을 하는 일이 더 즐겁고 행복해졌다.

2.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의 일이었다. 이 날은 일상이 여유로워지는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냈다. 나는 친구들에게 매번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며 작별인사를 건낸다. 나는 그때 그 친구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니, 나 스스로도 설레는 시간이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노력해야겠다는 따뜻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 여행 덕분에 좋은 추억도 생겼다. 기억에 남는 기억을 하나씩 찾기로 마음먹은 후, 여행의 기억을 되새김질해 보기로 다짐했다. 기억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이를 통해 내가 느낀 감정의 흐름을 연결짓는 작업이다.

특히 겨울의 캐나다 여행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기분을 미리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날은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다양한 수공예품과 그린 브런치를 저렴하게 만나 볼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당일 보다도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설레는 시간들이 좋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는 각종 디저트는 나에게 너무나도 설레는 구입리스트이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만났던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었다. 나와 함께 웃으며 인사를 나누며 인사를 나눈 뒤,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다. 몰랐지만, 되돌아보니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사람은 참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는 매우 친절했다. 그는 나에게 “너와 함께 있다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마음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사실 숙소에서 밥을 해 먹기로 했다. 내일은 산에서의 마지막 아침 식사, 그리고 술 한잔 하기 위해 다시 짐을 싸고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바다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혼자간 여행이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함께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여행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어있었다. 혼자 여행에서의 외로움, 안전과 귀찮음, 귀찮음과 같은 이유로 여행을 포기하자는 것은 많은 생각을 갖고 떠난 여행의 53% 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는 여행의 이유에 포함시켰다. 물론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나는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혼자갔지만 여행이라는 이유로 힘들고 외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것도, 여행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행에서 발견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여행으로 만들며, 여행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부푼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했다.

많은 것을 느꼈다. 여행 중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함께 있었던 시간이 무척 좋았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이 나에게로 향했고 나에게로 와준 많은 도움에 서로에게 매우 감사했다. 앞으로도 함께 걷자고 결심했다. 그때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을 떠올리며 순간 웃음이 났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여행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어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